

故 오승운 화백 쓸쓸한 1주기

진실 찾기 법정 공방... 추모행사 없어

지난 12일은 이 지역 중진서양화가 오승운(1940~2006) 화백이 세상을 떠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하지만 유족은 물론 광주미술협회 등 그 어디에서도 고인의 화업을 기리는 별도의 추모행사가 열리지 않아 쓸쓸한 1주기를 보냈다. 이는 유족들이 화랑을 상대로 한 작품 반환소송 등 화집출간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이 해결되지 않아 추모행사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전에 화실에서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는 오승운 화백. <광주일보 자료사진>

지 않는 등 먼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모든 작품을 유족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화랑측은 금강산 등 50회 이상 대표작 4점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만을 유족에게 반환하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족들은 고인의 1주기를 기념하는 별도의 추모행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신 유품 기입인 오는 31일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고인의 제사를 지내기로 하는 등 일체의 추모사업을 미루고 있다.

오 화백의 딸 수경씨는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법적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념식이나 추모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게 가족들의 생각이다"며 "고인의 명예회복은 물론 가난한 화가들이 화랑의 횡포에 희생되는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적투쟁을 계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오지호(1905~1982) 화백의 차남이자 한국 서양화단의 거장인 오승운 화백은 지난해 1월 광주시 서구 풍암동 모 아파트 화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경기자 penfoot@kwangju.co.kr

Y화랑 상대 원화 반환소송 아직 해결점 못찾아

법적 절차 풀려야 기념사업...미협행사도 전무

다고 맞서는 등 1년째 '진실공방'을 되풀이하고 있다.

유족들은 또 오 화백이 Y화랑에 제공한 유품 19점, 드로잉 8점과 화방이 제작한 판화 7천여점 등을 돌려받기 위해 작품 반환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마저도 1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 사안도 재판부의 주재로 수차례 조정과 일부만을 반환하겠다는 화랑측의 주장이 맞서 1년 여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유족들은 화집제작을 위해 작품들(화랑측에) 건넸지만 Y화랑이 화집을 출간하

이 사안도 재판부의 주재로 수차례 조정을 거쳤지만 작품 전부를 돌려달라는 유족과 일부만을 반환하겠다는 화랑측의 주장이 맞서 1년 여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유족들은 화집제작을 위해 작품들(화랑측에) 건넸지만 Y화랑이 화집을 출간하

연경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개혁작업 본격화 되나

용역 통해 인력·재정 진단

예술총감독 조기 선임·전시 예산 대폭 확충 등 주목

오는 8월부터 비엔날레 재단의 인력과 예산이 감축되는 등 광주비엔날레 개혁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특히 비엔날레 개최 예산을 10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축소하는 대신 전시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등 타 비엔날레와의 차별화를 위한 예산 활용방안도 도입된다.

한갑수(재)광주비엔날레 이사장은 15일 "이 같은 과제 내용을 포함한 광주비엔날레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맡겼다"고 밝혔다.

재단은 오는 5월경 용역 결과가 제출되는 대로 재단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오는 8월경 개혁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비엔날레 재단은 예술총감독을 예년보다 빠른 오는 3월경 선임하기로 하고 연임 여부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용역과제에 포함시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단은 우선 기존 행사개최 시 40%대에 머무르고 있는 전시예산을 7회 대

회부터 60%까지 끌어올리는 대신 관리·마케팅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기로 했다.

현재 재단의 상근 인력 21명을 감축하기 위해 유사조직 통·폐합을 비롯 재단 직원을 정예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비엔날레 개최기간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광주시립미술관 전시 인력을 행사에 참여시키는 방법 등 인력 교환 프로그램도 시행될 예정이다.

또 재단 기금의 운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단 기금 285억원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수익증대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재단은 '재단기금관리 위원회'를 조만간 발족할 예정이다.

한갑수 이사장은 "후발 비엔날레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비엔날레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대적 요청을 받고 있다"며 "개혁작업을 통해 세계적인 비엔날레로 도약하기 위한 경쟁력을 키워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경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음악협회 한일 우호콘서트

20일 샷바로 기타라 홀

광주음악협회(회장 임관표)가 일본 샷바로 음악협회와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한다. 지난해부터 준비 작업을 진행해온 광주음악협회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샷바로 기타라 홀에서 열리는 우호콘서트를 시발점으로 매회 상호 교류 연주회를 열 계획이다.

임해철, 김백호, 김진희, 나원진씨 등이 출연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한국의 민요와 현

대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곡가인 김선철씨의 '아리랑 변주곡'과 이진우씨의 '첼로와 대북 연주'를 일본 음악인들이 직접 연주할 예정이다. 또 이번 콘서트에는 피아노 독주와 플루트 4중주곡을 연주하며 한국과 일본 출연자가 함께 호흡을 맞춰 오케라 '리콜레토'의 곡을 들려준다.

연경기자 mekim@kwangju.co.kr

계간 '시와 사람' 등지 이전 기념 문학강연

19일 광주 금동 사무실

계간 '시와 사람'(발행인 강경호)이 오는 19일 오후 5시 사무실(광주시 동구 금동 8-1번지)에서 문학강연을 갖는다.

이번 강연회는 최근 2층 건물을 리모델링한 새 사무실로 이전한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월간 '현대시학'

의 주간 정진규씨가 '미래의 시인들에게'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또 시인 윤남숙(40)씨가 '시와 사람' 신인상(2006년)을 수상할 예정이다.

'시와 사람'은 광주문학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올해 시낭송과 시극, 문학강연 등 다채로운 문학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문의 062-224-5319

연경기자 camus@kwangju.co.kr

일북회전 19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윤암(雲峯) 조용민 선생의 문학생 모임인 일북회(一福會·회장 공재학)가 오는 19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제26회 회원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회원 100여명이 참가해 하서 김인후 선생과 두보의 시, 채근담 등 선인들의 글을 다양한 서체로 해석한 작품과 묵죽, 석란 등 수묵화를 선보인다.

일북회는 1981년 창립전을 가진 이래 매년 회원전을 열고 있으며 2001년부터 학생서예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문의 062-380-8819

연경기자 penfoot@kwangju.co.kr



공재학 작 '춘곡선생 시 묵묵동'

Advertisement for movies and theaters including Mega Box, In Cinema, and Columbus Cinema. Lists various film titles and showtim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bun Development (대인부동산컨설팅). Lists services like land acquisition, construction, and property management.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eombun Development (금보부동산컨설팅). Lists services like land acquisition, construction, and property management.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Ina Development (인애공인중개사). Lists services like land acquisition, construction, and property management.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 Euplura Development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Lists services like land acquisition, construction, and property management.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Hyundai Development (현대공인중개사). Lists services like land acquisition, construction, and property management.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 (Law Court Auction).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